

“서로 도와가며 하니 실력도 더 커지죠”

보일러 교실 사비로 운영해온 이영수 명장

“처음엔 나도 돈 벌어야 하니 꼭 3년만 하자며 시작했어요. 현대 실직자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되찾게 될까. 어떻게 하면 귀에 쏙쏙 들어가게 기술을 가르쳐줄까 하는 것이 늘 연구과제라는 이영수 명장. 매일 강의와 실습엔 젊은 시절 DJ하면서 길러진 언변이 엄청난 도움을 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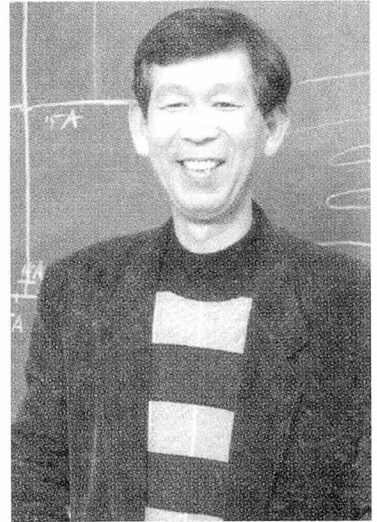
젊은 시절 다방 DJ를 하던 겨울 어느 날, 길가의 철공소에서 ‘땅에 묻으면 겨우내 방이 뜨끈 뜨끈한’ 매력적인 보일러를 만난 스물두 살 청년은 그 후로 보일러와 평생을 인연을 맺는다. 1978년 갖고 있던 레코드 1800장을 팔아 6평짜리 ‘만물공작소’를 냈지만 그 귀한 보일러를 초보에게 맡기는 부자는 없었다. 이 배짱 좋은 청년은 사업을 때려치우기보다는 달동네를 다니면서 동짜로 보일러를 고쳐주고 굴뚝 청소며 쌀, 연탄배달도 했다. ‘보일러 고쳐주는 젊은이’라는 소문이 나고,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의 실력도 나날이 늘어갔다.

98년 그가 노동부가 선정하 S보일러 부문 명장에 선정되던 해는 IMF로 온 나라가 허리띠를

줄라매 때였다. 천만 원의 상금과 ‘자랑스러운 시민상’으로 백만 원을 받은 그는 헛되이 쓸 수 없겠더라. ‘이 돈도 다 국민의 세금인데, 명퇴자, 노숙자들

도 많고 나라가 망하네, 아니네 난리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하자’ 마음먹은 그는 구청을 찾아가 장소만 제공해주면 실직자들을 모아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제안한다.

그해 12월, 장소를 제공받은 그는 신청자 300명중 부양가족과 어려운 정도를 감안해 20명을 1기생으로 선발한다. 16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사랑을 나눠 준 사람들이 모두 400여명. 그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교실을 지키고 있다.



사랑의 보일러교실은

1999년 문을 연 실직자 직업학교로 서울 성수동에 위치해왔다. 코스는 6개월 단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한다. 과정을 마치면 보일러 취급기능사, 보일러 시공기능사, 운수·온돌 기능사의 세 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매일 봉사회비 500원, 졸업이수 조건은 사회봉사 50시간, 자격증 하나를 딸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10kg씩 기증하기가 수강 조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학칙이 있다.

‘연상의 독신녀를 사랑하자’. 바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파스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자는 뜻.

‘사랑의 보일러 교실’은 지난 2005년 서울특별시 부지가 매각되면서 폐교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모금운동으로 위기를 넘겼다.

지금도 운영을 이영수 명장의 개인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어서서 장소만이라도 제공해줄 수 있는 후원자가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문의_이영수 011-495-3104